

민주, 전당대회 앞두고 격해지는 친명-비명 신경전

“국민의힘 주장에 편승” vs “사법 리스크 거론 ‘방탄용’” 광주·전남 국회의원들 관망세 속 일부는 친명에 줄서기

더불어민주당 새 지도부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 컷오프 경선이 보름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친명(친 이재명) 진영과 비명(비이재명) 진영 간의 신경전이 고조되고 있다.

우선 비명계 주자들은 ‘어대명’ (어차피 당 대표는 이재명) 구도를 깨기 위해 이재명 상임고문의 사법 리스크를 본격 거론하며, ‘이재명 불가튼’을 집중 거론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 고문의 당권 도전을 ‘방탄용 당권’이라고도 각을 세우고 있다.

당권 주자인 강병원 의원은 13일 YTN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에 나와 “당이 민생을 챙기는 정당으로 인정받아야 할 때 사법 리스크가 발목을 잡지 않아야 한다”라고 말했다. 야권을 중심으로 사정정국이 조성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는 상황과 맞물려 이 고문이 당의 지도부로 전면으로 나설 경우 당의 역량이 민생위기 대응에 집중되지 못하고 여론에 끌려가리라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박용진 의원은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이 고문의 출마가) 사법 리스크에 대한 ‘방탄용’이라는 비판적 시선이 있다는 것을 (이 고문도)

알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실제로 비명계에서는 이 고문이 당 대표가 되고 나서 본격적인 사정정국이 조성됐을 때 전략적으로 대응이 쉽지 않다는 점을 역설하는 분위기다.

‘사법리스크론’에 대해 친명계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국민의힘의 터무니없는 주장에 편승하는 것이며, 이 고문을 향한 ‘흡집내기’이자 정치적 공세가 선을 넘고 있다며 부글부글 끓는 분위기다.

이와 관련, 이 고문을 자신의 국회 입성을 두고 ‘방탄용’이라고 비난했던 국민의힘을 향해 “물도 안 든 물총으로 협박하고 ‘방탄’ 운운한다”며 “빈 총으로 겁주는 저 집단에 굴복하면 되겠다”는 입장을 나타낸 바 있다.

최고위원 후보인 정경래 의원은 KBS라디오 ‘최

경영의 최강시사’에 나와 “강력한 리더십에는 이 고문이 적합하다”고 말한 뒤 “허상을 갖고 리스크가 있다는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에 반대한다”라며 적극적으로 이 고문을 비호하고 나섰다.

이처럼 사법 리스크 등을 고리로 선두 주자인 이 고문을 향한 공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비명 성향인 최고위원 후보들의 출마 선언이 이어지며 계파 간 대립구도가 뚜렷해지는 모양새다. 전남 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인 윤영찬·고민정 의원에 이어 이날은 초선 의원 모임 ‘더민초’ 운영위원장인 고영인 의원과 광주시당위원장인 재선의 송갑석 의원이 최고위원 도전을 선언했다.

한편, 전대가 가까워지면서 광주·전남 국회의원들의 행보가 조금씩 구체화되고 있다. 그동안 중도

나 비명(비 이재명) 성향이었던 지역 국회의원들이 ‘이재명 대세론’에 점차 합류하는 분위기다. 기존 친명계였던 민형배·주철현 의원에 이어 최근에는 이용빈, 이형석 의원이 친명 진영에 가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전체적인 분위기는 아직까지 관망세가 강하다. 친명 진영에 합류할 명분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지역 정치권에선 이 고문 측에서 “줄을 서시오”라는 오만한 자세보다는 낮은 자세로 호남 민심의 눈높이에 부합하는 혁신 행보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또 호남 최고위원 주자인 송갑석 의원 등과 손을 잡는다면 지역 국회의원들이 자연스럽게 합류하지 않겠느냐는 전망도 제시하고 있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kwangju.co.kr



민주당 경제위기 대응 현장 간담회. 더불어민주당 경제위기대응특별위원회 김태년 위원장이 13일 서울 여의도 KB국민은행에서 열린 환율 위기 대응 상황 점검 현장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 송갑석, 최고위원 출마 선언

21대 호남 첫 최고위원 탄생할지 ‘호남정치 복원’ 토대 마련 주목

더불어민주당 송갑석(서구갑) 국회의원이 1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8·28 전당대회 최고위원 출마를 선언했다.

이에 따라 21대 국회에서 민주당의 최대 정치 기반인 호남에서 첫 최고위원이 탄생할지 여부와 이번 전당대회를 통해 호남 국회의원들이 결집을 통해 ‘호남 정치 복원’의 토대를 마련할 수 있을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송 의원은 이날 출마 선언을 하며 “호남을 대표하는 후보로서, 정권을 되찾기 위한 호남의 강렬한 여망을 실현하겠다”면서 “비수도권의 유일한 최고위원 후보로서, 호남은 물론 영남, 충청, 강원, 제주 등 전국 각지의 민심을 대변하겠다. 그러면 지역도 빼어난 소외와 배제, 차별을 겪지 않도록 온

몸을 바치겠다”고 강조했다.

또 “검찰개혁, 언론개혁 등 민주당이 지금까지 추진한 개혁 과정에 대한 냉정한 평가를 내려야 한다”며 “당과 민심의 괴리가 커지고, 국민의 피로감은 증폭됐으며, 개혁의 필요성 대신 정쟁만 부각됐고, 결과는 기대보다 미약했음에도 성찰하지 않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실망한 국민과 당원이 등을 돌리는데도, 일각에서는 팬덤이라는 말 뒤에 숨어 개인과 계파의 정치적 욕망을 당에 투사하고 있다”며 “특정 계파, 특정 인물과 각을 세워 몸집을 키우며 정치를 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그럴 생각이 없다”고 했다.

한편 21대 국회에서 전북의 한병도 의원과 전남의 서삼석 의원이 앞선 두 번의 전당대회에서 각각 호남 단일주자로 최고위원 도전에 나섰다. 호남 표 결집에 실패해 모두 경선 문턱을 넘지 못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민주 전대 순회경선 내달 6일 강원·경북서 스타트 광주·전남 경선 다음달 셋째주...판세 영향 적을 듯

더불어민주당의 차기 지도부를 뽑는 순회경선이 오는 8월 6일 강원, 대구·경북에서 시작된다. 특히 광주·전남지역 경선 일정은 과거 경선 초반에 배치했던 것과는 달리, 이번에는 다음달 셋째 주에 예정되어 있어 “전체 판세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던 ‘호남 파급효과’는 덜 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민주당은 13일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전당대회 본 경선 일정의 가안을 공유했다고 신현영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민주당은 본 경선을 4주에 걸쳐 주말마다 전국을 순회하며 진행하는 방향으로 추진한다.

우선 첫 주에는 토요일인 8월 6일 강원·대구·경북에서, 일요일인 7일에는 제주·인천에서 각각 오전과 오후로 나눠 합동연설회를 진행한다.

둘째 주에는 13일에 부산·울산·경남, 14일에 세종·충북·충남·대전을 순회하고 셋째 주에는 전북·전남·광주 등 호남에서 순회 경선이 진행된다.

이어 마지막 주인 28일 경기·서울 등 수도권 본 경선과 함께 전당대회를 열어 지도부를 선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광주시 구청장 협의회장 김병내 남구청장 선출

김병내(사진)광주 남구청장이 광주지역 5개 자치구 행정협의체인 ‘민선 8기 광주시 구청장 협의회’ 회장에 선출됐다.

13일 남구에 따르면 김 구청장과 임택 동구청장, 김이강 서구청장, 문인 북구청장, 박병규 광산구청장은 이날 오전 민선 8기 첫 회동을 갖고 상반기 구청장 협의회장으로 김병내 구청장을 추대했다.

김 구청장은 오는 2024년 7월까지 광주시 구청장 협의회장으로 2년간 활동하게 된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이재용·김경수 8·15사면 확인해 드릴 수 없다”

대통령실 밝혀

대통령실은 13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김경수 전 경남지사 등에 대한 8·15사면론에 대해 “이 시점에서 확인해드릴 수 있는 것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 부회장, 김 전 지사 얘기도 나오는데 사면 문제가 논의되고 있는가, 논의되면 범위는 어떻게 되는가’라는 질문을 받고 이같이 답변했다. 정계와 재계를 중심으로 폭넓은 사면론이 거론되고 있는 상황에서 구체적인 언급을 자제한 것으로 보인다.

이번 8·15 특사는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 사면권을 행사하는 계기로, 이명박 전 대통령뿐 아니라 기업인과 야권 인사 등이 어느 정도 포함될지

를 두고 벌써 관측이 분분하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전남 페이스북에서 윤 대통령에게 정·재계 인사들의 대대적으로 사면을 요청하는 등 정치권 안팎에서 사면론이 이어지고 있다.

한편, 대통령실은 한일관계와 관련 “미래를 생각하고 현재 문제를 풀어나가는 (윤석열 대통령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일본 참의원) 선거가 끝났지만,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가 누구나 다 총격을 받을 정치 테러로 세상을 떠났다”며 “이후 과정은 일본 국내 상황이 어렵고 (정치적으로) 복잡한 게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국내외 사정을 고려해 어떻게 미래지향적으로 풀어갈지 시간이 지나면 좀 더 구체적인 모습을 여러분께 알려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kwangju.co.kr

한국토지부동산(주)
전원주택 신축
매매 9억5천만원



전라남도 담양군 수북면 청소년수련관입구

■ 대지 : 979㎡ (296.14평)

■ 건물 : 323.86㎡ (98평)

(지상2층, 지하주차장포함)

상담문의 010-3733-3933